

너 내 장례식 오면 죽일 거야 꼭 ...

영주 중학생 마지막 문자
투신 전 가해 학생에게 보내
자살 고위험군 치료 중인데
학교선 괴롭힘 전혀 몰라

16일 자살한 이 학교 2학년 이모(14)군은 가족의 오열 속에 영주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치러졌다.

‘너 내 장례식 오면 죽일 거야 꼭’. 이군이 자살하기 직전인 당일 오전 8시54분 자신을 괴롭힌 전모(14)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이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군은 지난 한 달간 가해학생으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담임 교사 등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군은 지난해 학교에서 한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 학생으로 분류돼 치료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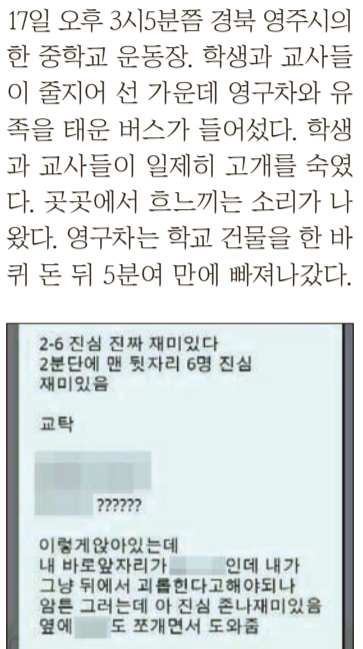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같은 반의 전모(14)·최모(14)군 등 3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군 등은 수업 중 이군의 뒷자리에 앉아 뒤통수를 툭툭 때리고 주먹으로 등을 치거나 연필로 찔렀다. 미술시간에는 이군이 그린 그림에 붓으로 물을 뿌렸다. 이군이 “싫다”고 했지만 이들의 폭행과 짓궂은 장난은 계속됐다.

전군 등은 경찰에서 “놀러 보니 재미있어 장난 삼아 계속했다”고 말했다. 전군이 서클 가입을 강요한 것도 자살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군에게 자신이 주도하는 서클에 가입하라고 강요했고 지난 12일 마지막에 승낙했다. 이군은 유서에서 ‘나는 그 자식과 노는 게 싫다. 그래서 자살하려 한다’고 적었다. 이 서클은 전군의 이름을 따 ‘OO패밀리’로 불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군이 처음 만든 뒤 최근 이군이 들어오면서 11명이 됐다.

학교의 학생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군은 지난해 5월 학교에서 한 ‘정서행동발달심리검사’에서 자살 위험도 수치가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7명 중 1명이었다. 복수담임제 도입으로 이군 학습의 담임 교사가 2명이었지만 누구도 그가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랐다.

한편 17일 오후 7시45분쯤 경북 안동시 송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 2학년 김모(1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에 성적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뤄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영주=홍권삼·위성욱 기자
honggs@joongang.co.kr



지난달 8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전모(14)군이 피해학생 이모(14)군을 괴롭히면서 친구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보낸 내용.

학교폭력 당해봤다 18.3% ... 6년 만에 최고치

초·중고 9174명 설문
피해학생 30% “자살 고려”
구타·욕설·갈취·따돌림 순

면 조사에 참여한 초4~고2 학생 917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3%나 됐다. 이 재단이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가해 경험 학생은 15.7%였다. 복수(複數)로 응답한 피해 유형 중 1순위로 꼽은 학교폭력으로는 구타 같은 물리적 폭력(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욕설·모욕,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등 순이었다. 여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20%)가 남학생(4%)보다 훨씬 많았다. 최희영

위기지원팀장은 “여학생들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왕따’ 같은 형태의 폭력을 많이 가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의 31%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74%는 가해 학생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34%), ‘상대방이 잘못해서’(20%) 또는 ‘특별한 이유 없다’(18%)는 답이 많았다.

이한길 기자 oneway@joongang.co.kr

초·중·고생 5명 중 1명은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피해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다.
17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2011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



내가 미8군 천하장사 '한-미 친선 주간'을 맞아 서울시는 주한 미군·군무원과 외교관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해 17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용산지역대에서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열린 씨름대회에서 주한미군이 씨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도 하버드·존스홉킨스 병원 2016년 문 열 방법 찾았다

외국 영리병원 시행령 의결
10년 만에 세부 규정 마련

인천시 송도에 외국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0년 만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경자유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명시하고 구체적 허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자유역의 외국인 영리병원은 2002년 허용됐지만 이런 세부 규정이 없었던 탓에 그간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2007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찬반논란이 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결국 정부 권한인 하위 규정을 개정하는 ‘우회전략’을 택한 것이다.

(본지 2011년 9월 14일자 1면)

이달 중 마련될 보건복지부령의 개설 요건에는 ▶외국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관장과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협약을 한 병원의 의사여야 하며 ▶전체 의사의 10% 이상이 외국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6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2016년 송도에 열겠다는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 다이와증권 계열사가 지분의 60%를 가진 ISIH컨소시엄(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기업 40%)과 투자협상을 진행 중이다. 운영기관으로는 미국 존스홉킨스와 하버드가 물망에 올라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종석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은 “송도에 국제병원이 설립되면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연간 6만여 명의 국내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브리핑

디도스 특검팀, 최구식 의원 소환
디도스 특검팀은 17일 무소속 최구식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구속 기소)씨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디도스 공격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착공
제주도를 글로벌 의료관광의 허브로 만들 제주헬스케어타운 착공식(사진)이 17일 열렸다. 국토해양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날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도연 국토해양부 장관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변정일 JD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의료와 휴양을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의료 단지다. 2015년까지 사업비 784억원을 들여 토평동에 153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KakaoTalk **에듀윌** 무료수강 **대박쿠폰?** 에듀윌과 카톡해봐!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에듀윌**

업계 최고 적응률의 명강의, 초보수험 가이드, 온라인강의·학원강의 동시활용 등등
빈틈없는 합격 노하우로 꼭 차 있는 곳! No.1 에듀윌과 함께 2012년 합격을 예약하세요.

2012년 시험대비 평생회원반 통큰 혜택!
온라인 평생회원 가입시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오프라인 학원강의의 무료수강 혜택
 - ▶ 공인중개사 2012. 8. 31까지
 - ▶ 주택관리사 2012. 6. 30까지
- 전과목 교재 무료제공
 - ▶ 공인중개사 - 2012 기본서 + 문제집 총 12권
 - ▶ 주택관리사 - 2012 기본서 + 문제집 총 10권
- Full HD 동영상 / PMP / MP3 / 스마트폰 강의
 - ▶ 수강기간 동안 모두 무료로 제공

합격을 향해 다시 한번 GOGO~!
작성3개월을 넘어라!

열공 각오의 댓글 10만원 이벤트

올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나니 연초 각오가 흔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으랏차~ 열공하세요!
열공각오 댓글만 올리시면 **10만원 할인권** 드립니다.

기간 : 4월 18일(수) ~ 4월 25일(수)

※ 자세한 내용은 에듀윌 홈페이지 참조

2012년 시험,
꼭 합격할 거예요!

권혁주 회원님
에듀윌 주택관리사

김예진 회원님
에듀윌 공인중개사

에듀윌 교육서비스 | 에듀윌 전문학원 | 동영상 / 교재문의 1600-6700 | 대한민국 평생교육 No.1 에듀윌